중국, 신형 AI 백신 개발 성공

백신 3종에 진단기술 1종 개발 ... 사활표시 백신은 세계 최초

중국 농업부는 6월14일 국가 조류 인플루엔자(AI) 참고실험실이 3종류의 신형 AI백신과 1종류의 AI 진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신화통신은 농업부 발표를 인용해 연구성과가 전염병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진단기술 연구에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중국과 세계 AI 예방 및 통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개발에 성공한 3종류의 백신은 AI 사활표시 백신, H5 아시아형 HA 유전자 AI DNA 백신, AI 중복조각 아시아형 백신 등이다.

특히, 사활표시 백신은 세계적으로 처음 개발된 것으로, 혈청학적 방법으로 자연 감염과 백신을 통한 면역 반응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중국 농업부 관계자는 “함께 개발된 H5 아시아형 AI 캐속 면역진단 시험지는 10여분만에 AI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어 신속한 AI 예방과 통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리 AI(조류 인플루엔자) 방지 회의가 6월 29-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최초로 개최된다.

200여명의 국제전문가들이 프랑스 파리소재 파스퇴르연구소에서 회의를 갖고 AI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의 진전 상황, 특히 인간치료와 예방을 위한 새로운 표적요법들을 논의하고 대규모 인간확산을 모면 혹은 저지하기 위한 전략계획들을 수립한다.

대규모 확산이 발생했을 때 재앙 시나리오를 운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 세션 개최도 예정돼 있다.

회의에서는 △AI의 세계 확산 개관 △ H5N1형 바이러스에 대한 집중도의 △치료와 전망 △새로운 탐지도 구와 키트 △인플루엔자 방지 △인플루엔자 방지와 치료를 위한 대체 해결방안과 경로 △재난운용 대응 등의 의제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06 파리 AI 방지회의는 과학자와 제약기업들에게 H5N1, 인플루엔자 퇴치노력에서 효능을 보인 새로운 타겟, 새로운 방식 혹은 제품들과 인플루엔자 탐지를 위한 새로운 도구 및 키트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는 Applied Bio Systems, Battelle, Baxter, Bio Merieux, Bio-Rad, Boeing, Combi Matrix, GSK, Green Hills Bio Technologies, P&G, Roche, 록커비 바이오메드, Sanofi Pasteur, Solvay Pharmag, 트라이오신 등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16>